



한림의료원
의료진 아이디어
사업화
L2



Life

삼성복지재단
마음건강 교육
전국 보급

L4



2026 청소년 마음성장 프로그램 참여 교사 연수

빛과 물이 빚어낸 예술 반짝이는 윤슬 따라 걸어볼까

아파트의 미학(美學)

춘천 아테라 더 퍼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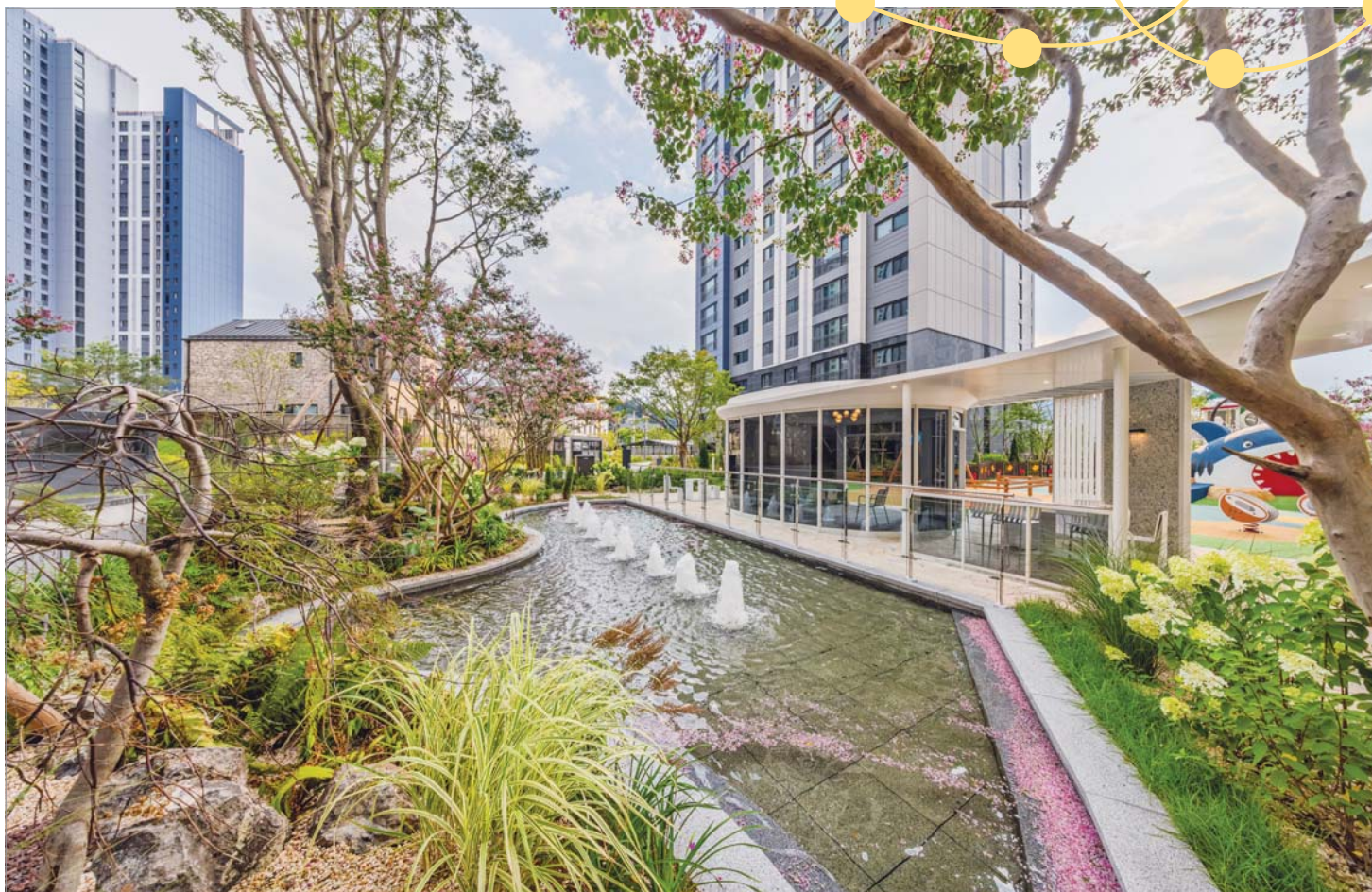
다음달 입주를 앞둔 '춘천 아테라 더 퍼스트' 단지에 들어서면 101동 외벽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같은 조형물이 가장 먼저 맞아준다. 입주가 아직 한 달여 가량 남았지만 조경을 비롯해 마무리 작업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로 사전 점검 당시에도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춘천 아테라 더퍼스트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에 지상 29층 8개동, 총 543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전용 59㎡와 116㎡가 46가구씩이며, 84㎡는 A와 B타입이 각각 364가구, 87가구다.

단지가 자리잡은 동면 일대는 총 3200세대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심과 동떨어진 외곽의 택지가 아니라 만천천을 사이에 두고 기존 주거 중심지인 후평동과 맞닿아 있다. 도로 거리에 만천초와 춘천여고 등 학교를 비롯해 인근에 대형마트와 후평동우체국, 춘천성심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모두 위치했다. 특히 공사가 한창인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가 바로 옆에 위치해 내년이면 총 1000세대 인파의 아테라 브랜드 타운이 되기도 한다.

춘천아테라더퍼스트는 신흥주거타운이라는 입지에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춘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아트 인 리빙(ART in Living)'을 적용하는 두 번째 단지로 낙점됐다. 101동 외벽을 장식한 바로 그 작품이다.

아트 인 리빙은 금호미술관이 발굴한 금호



분수와 수변시설, 티하우스가 어우러진 단지 중앙광장.

/금호건설

다음달 입주 앞둔 총 543가구 단지
조경 비중 43.5%… 법정기준 약 3배

금호건설 주거브랜드 '아테라' 선배
금호영아티스트 출신 작가 작품 설치
생활형 예술공간 '아트 인 리빙' 적용
소양호 영감받은 작품으로 외벽 꾸며

중앙광장 분수와 어우러진 티하우스
수변시설 따라 정원·산책로 이어져
안개 미스트로 몽환적 분위기 연출
페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심터'도

영아티스트 출신 작가들이 아테라 단지의 공간 특성에 맞춰 작품을 직접 기획·설계·적용하는 예술 협업 프로젝트다. 단순한 미술 장식을 넘어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형 예술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제22회 금호영아티스트로 선정된 송승준 작가가 참여했다. 송 작가의 '수면 위의 정원'은 춘천을 대표하는 소양호의 수변 식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햇빛이나 달빛이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을 윤슬이라 하는데 아파트 외벽은 그대로 수면이 됐고, 시시각각 때에 따라 변하는 윤슬을 연출한다.

단지 정면으로 늘어선 소나무 군락이 눈길을 먼저 끌지만 조경의 하이라이트는 티하우스

가 위치한 중앙광장이다. 분수와 함께 흐르는 동선이 단지 내 산책로와 수변 잔디공간, 어린이 놀이터까지 편리하게 이어지게 한다. 티하우스 역시 당초 설계보다 폭을 넓히고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바퀴 소통의 즐거움이 편안한 일상이 되어 흐르게했다.

사랑방 쉼터답게 정자수인 대형 팡나무가 곳곳에 식재됐으며, 주변 낮은 초화 사이로는 안개를 뿜어내는 미스트가 설치됐다. 실용적으로는 주변 온도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감성적으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분수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산책로 곳곳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졌다. 춘천 아테라 더퍼스트 전체 단지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법정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아이들 입장에서 하이라이트는 작은 워터파크를 옮겨놓은 듯한 물놀이터다. 오목한 놀이공간에 미끄럼틀과 물놀이 시스템이 어우러져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놀이환경을 구현했다.

가족 친화형 단지로 출입문 쪽에는 아이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는 키즈 스테이션이 위치했으며, 놀이터는 달빛에 걸쳐 흐르는 푸른 구름을 형상화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1 '아트 인 리빙(ART in Living)' 두번째 작품인 '수면 위의 정원'. 2 중앙광장에 식재된 초화 사이로 미스트가 안개를 뿜어내고 있다. 3 김우진 작가의 '사슴'

메트로 한줄뉴스



▲배드민턴 안세영, 부상 딛고 세계선수권 출격… 3년 만에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자정 넘어 침실 침범하는 경기장 '빛 공해'… "최소화 노력"

▲日축구협회장 "한국서 성접대 받은 심판들 사실관계 확인 중"

▲모델 송해나, 대한체육회 홍보대사 위촉… "함께해 영광"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극 온다…제26회 SPAF 10월 개막

▲사형 앞둔 안중근이 남긴 8글자…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 국내 귀환